시 론

새해는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했다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학평론가

새해를 맞으며 나는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했다. 이 문장을 말하기까진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의욕 상실이나 자기 포기로 오해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는, 다소 늦었지만 솔직한 고백에 가깝다.

우리는 언제부터 새해가 오면 당연히 목표를 세워야 하는 사람이 됐다. 연초가 되면 감량해야 할 체중, 달성해야 할 수입, 이뤄야 할 성과들이 숫자로 정리된다. 목표는 한때 삶을 정돈하는 도구였지만, 어느새 삶을 다그치는 기준이 됐다. 계획에서 벗어난 하루는 실패로 기록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대개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지워진다. 경기의 흐름, 노동의 조건, 건강과 돌봄, 우연과 운 같은 요소들이다. 목표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대신,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온전히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기 계발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더 나은 나'라는 구호는 멈추지 말라는 압박으로 변질했다. 쉬는 사람, 속도를 늦춘 사람은 금세 뒤처진 존재로 인식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지는 다시 물어야 한다. 목표가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스스로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열하게 만든다면, 그 목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목표를 세우느라 가장 바빴던 시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지쳐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다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중독에 가까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표를 세우지 않겠다는 선택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하나의 질문이 된다. 우리는 왜 늘 더 나아져야만 하는가. 왜 충분히 버티고 있음에도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규정하는가. 성장만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서 현상 유지는 좀처럼 존중받지 못한다. 하지만 삶의 많은 국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데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대신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로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다. 불필요한 경쟁, 소진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타인의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삶으로부터 조금 비켜서고 싶다. 방향은 성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길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 대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려 한다.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지,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성과가 없을 때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다. 태도에는 달성률이 없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질 이유도 없다. 오래 남는 것은 대개 태도다.

또 하나는 리듬이다. 매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멈췄다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삶은 계획표처럼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제자리에 머문다. 그 모든 시간이 실패이거나 낭비는 아니다.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한 것은, 오래 가기 위함이다. 더 많이 이루는 해가 아니라, 덜 무너지는 해를 살고 싶어서다. 새해는 늘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목표가 삶을 재단하지 않는 한 해, 그것이 내가 2026년에 바라는 전부다.

자치칼럼

제로섬 사회와 공동체 사회

이 계 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 서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본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제로섬(Zero-Sum)' 사회가 돼버렸다.

이제 인류와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강고한 제로섬 체제로 인해 불신과 갈등, 혐오와 배제가 만연해 포화 상태이다. 제로섬 사회는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를,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인류는 나의 이익과 승리와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무한경쟁은 누군가를 손해, 패배, 실패하게 해 모든 개인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며 공동체를 파편화해 붕괴시킨다. 1945년 발표한 영국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동물농장』(Animal Farm)이 이를 잘 보여준다.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서는 우선 권력의 제로섬을 보여준다. 농장 주인인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시작하지만 끝내 권력과 식량을 돼지들이 다 차지하고 만다. 소수의 돼지들이 권력과 식량을 독점하니 다른 동물들은 나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로섬 상태에서 동물농장공동체는 소수의 승자인 돼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 돼지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의심하며 침묵하거나 복종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동물을 의심하거나 이간질해 상호 불신을 조장하고 동물농장공동체를 분열, 붕괴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로섬 사회의 모습이다.

나아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념이 점점 돼지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돼 다른 동물들에게 불리(손해)하게 만들어 간다. 다른 동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불리(손해)가 일상화 되고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말하자면 동물농장은 인간농장 때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돼지 승자와 다수의 동물 패자로 갈라져 동물농장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만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불평등과 착취로 인해 불행한 개인들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남는 것은 소수 승자인 돼지의 권력과 자원의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과 다수 패자 동물들의 경쟁으로 인한 공포와 무관심으로 공동체의 연대가 무너지는 제로섬 사회의 폐단뿐이다.

이 폐단은 공동체 사회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개별화·파편화한 제로섬 사회는 결국 경쟁과 갈등, 불평등의 심화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사회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익을 상호 공유하고 확장해 가며 약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각자의 존엄이 보장될 것이며, 풍요가 지속 가능해 질 것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공동체 사회가 제로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 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은 경쟁적으로 각자의 효율과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바보처럼 자신과 무관한 시체를 수습하고 이름을 기록하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책임지려는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목숨을 위협하는 국가 폭력 앞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배려와 존중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실감 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5·18 이후 살아남은 광주시민들은 도청 안에서 예견된 죽음을 피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고통과 양심과 죽음을 기억하며 용감하게 증언하고 먼저 죽은 이들과 연대함으로 과거와 현재가, 산자가 죽은 자가 공동체를 이룬다.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광주공동체의 가치와 윤리는 타인의 죽은 몸도 소중하게 다루어 존엄을 지키며, 오롯이 사람으로 존중함으로 연대해 공동체를 이루고 지키는 것이다.

모두를 패배, 공멸로 이끄는 제로섬 사회를 넘어 서로를 향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며 홍익인간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널리 배려, 신뢰의 손길로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무한 가능성의 신세계가 될 것이다.

취재수첩

목포신협 임원 혼탁선거…前·現 이사장 모두에게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오는 16일 치러지는 목포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조합원 1만5천여명, 자산 4천500억원 규모의 지역 대표 협동조합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감정과 의혹이 뒤섞인 혼탁 선거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현 이사장은 현직으로서 조합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전 이사장 역시 과거 경영과 판단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지금의 혼란은 특정 개인이 아닌 전·현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의 승자는 결국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패자는 깊은 상처를 안고 지역사회에 남게 된다. 문제는 그 상처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합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과연 협동조합이 선택해야 할 선거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목포신협은 방만한 경영과 부실 대출 논란, 이사장 연봉과 판공비를 둘러싼 소문까지 겹치며 조합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선거 이후에도 현장을 지켜야 할 직원들과 조합원들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금품 제공 의혹, 네거티브에 의존한 여론몰이는 협동조합의 근간을 좀먹을 뿐이다. 신협은 정치 무대가 아니라 지역 금융 공동체다.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전·현 이사장 모두 책임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공정한 선거와 페어플레이부터 실천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는 누구에게도 남는 것 없는, 상처뿐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전남 공동체 역량모아 행정통합 실질 성과내야

광주시와 전남도 주도로 행정통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6·3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 선출 목표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되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의견을 최대한 반영, 2월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추진 방향도 제시됐다. 또한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해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기본 취지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더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위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달 말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강 시장이 이에 화답했으며 새해 들어 곧바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뒤 각각 실무 기획단 구성·운영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시·도교육청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교육통합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세부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비전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제는 합칠 때가 됐다. 합쳐야 한다.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지역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도 대체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큰 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5극(광역권) 3특(특별자치도)' 체제 구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인구 320만명의 초메가시티를 구현할 전략적 선택이다.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하겠으나 주민 동의를 거쳐야만 확실한 동력을 얻는다. 이 대통령이 재차 힘을 실었다. 광주·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진정한 행정통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반복되는 '헌혈 보릿고개' 올해 겨울도 예외 아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부족 우려가 올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주 보유량은 2.5일분으로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한달 전 4.4일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났다.

보건복지부 기준 적정분은 5일이며, 5일 미만은 '관심',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혈액형별로 보면 B형(4.9일분)을 제하고 O형 1.8일, A형 1.6일, AB형 1.7일로 경계에 머물러 있다. 혈액원은 주요 원인으로 학교 방학을 꼽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광주·전남 전체 헌혈자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고등·대학생의 참여가 방학 기간인 매년 1-2월에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희망자도 줄어들고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주지하는 내용이지만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가 안 된다. 보유량이 3일 치 아래로 떨어지면 의료기관에서 차질이 빚어진다. 장기간 보관 또한 불가능해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채혈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헌혈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귀한 실천이다. 중대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 혈액원은 지난해부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헌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학 직후인 3월8일까지 70일 동안 이뤄진다. 아울러 헌혈 주 연령대인 10-20대 인구가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이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 혈액 보유량이 한달 사이 대폭 감소했다. 다행이 일부 군부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예약하며 힘을 보태고는 있다. 굳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헌혈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기다.

아침을 여는 詩

눈과 음악

김정희

내 눈높이에서
공중회전 하는 너

무게를 버리면
저리 가벼워질 수 있다

음악이 핀다
빈 가지마다
음악은 순교다

멀리서
눈이 내리는 날은
종소리도 소망이다
(시집 '푸른계단', 시와 사람, 2014)

[시의 눈]

눈은 동심 친화적 오브제다. 하얀 눈의 몸짓은 동심이고 눈의 화음은 우주에서 보낸 음악이다. 동화 '눈의 여왕'도 눈을 주색채로 깔고 있다. 카이와 게르다는 사악한 거울을 가지고 놀다 깨트리는 바람에 파편이 카이의 눈과 심장을 찌른다. 그는 차가운 소년으로 변한다. 돋보기로 눈송이를 보는 순간에만 기쁨을 느낀다. 카이는 눈의 여왕에 홀려 사라지고, 게르다는 친구를 찾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얼어붙은 강에 홀로 서 있는 카이를 본 게르다는 덥석 껴안고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카이의 심장에 박힌 거울 파편을 녹였다. 카이는 따뜻함의 본성을 되찾는다. 원작을 모티브로 한 '겨울왕국' 또한 유사한 주제를 깔고 있다. 동심의 시선으로 눈을 보면 눈은 살아있는 날개다. 공중바람을 타고 가벼이 여행을 떠나는. 빈 가지에 앉은 눈꽃, 그 순백은 돌연 장엄한 음악이자 순교의 이미지로 승화된다. 순수의지의 눈의 품성은 초월과 비상의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가벼운 몸짓으로 빈 가지를 찾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아름다운 수행에 들어간다. 자신의 보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주고 가벼운 몸이 돼 영혼이 빛났던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처럼. 그 가치는 눈 오는 날 종소리처럼 긴 여운을 끈다.

〈윤삼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